육아정책연구
제16권 제3호(2022. 12.) 55~78 https://doi.org/10.5718/kcep.2022.16.3.55

아동이 지각한 성취압력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내재화 문제와 자기조절 효능감의 삼원 조절효과

전성은[1] 강영신[2]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성취압력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재화 문제와 자기조절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12차 조사자료 중 5학년 537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의 Model 1과 Model 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로 첫째, 지각된 성취압력과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서 내재화 문제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성취압력과 미디어기기 중독 간 관계에서 내재화 문제와 자기조절 효능감의 삼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은 경우 내재화 문제에 따라 지각된 성취압력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제언,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주제어: 성취압력, 미디어기기 중독, 내재화, 자기조절 효능감, 삼원 조절효과

Ⅰ. 서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의 스마트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아동(만 3-9세)의 28.4%, 청소년(만 10-19세)의 3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 과의존 위험 증가폭이 조사대상 유형(유아, 청소년, 성인, 60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2019년 30.2%, 2020년 35.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스마트폰과 PC 등을 활용한 과도한 인터넷 이용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상공간의 활동이 사회적 관계를 축소시켜 사회인지능력의 저하 문

1)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2)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제 또한 나타날 수 있다(신초희·이경숙·김계순, 2013). 더불어 미디어기기 과의존은 중독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기의 중독은 이후 신체 및 심리 발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독이란 조절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조절하기 어렵고, 그 결과로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생활이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김교헌, 2002).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기기는 게임 및 인터넷 등의 행위나 활동에 의존하게 하며,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으로 인해 생기는 초조, 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로 정의할 수 있다(강희양·박창호, 2012). 이와 같은 미디어기기 중독 문제에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의 경우 무엇보다도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어떤 가치관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따라 아동의 행동 양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기술을 우선으로 하는 물질만능 시대로, 능력 위주로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 생존전략이 필요함을 경험했던 부모들은 자녀에게 과중한 기대압력을 줄 수 있다(김유진·김종운, 2013). 부모들에게 학령기 아동의 학업성취는 능력 및 생존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모의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다(김유진·김종운, 2013). 이와 관련하여 성취압력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교육적 관심, 성취기대, 역할기대 등에 대해 자녀가 지각한 압력을 의미한다(박수자, 1996).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부담감과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며(김길임·심희옥, 2002), 본 연구에서 주목한 초등학교 5학년 시기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성취압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시기에 겪게 되는 성취압력이 중독과 같은 행동 문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중독에 있어 부모의 성취압력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일관적인 관계들이 보고된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성취압력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문두식·최은실, 2015; 장재홍, 2004), 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이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이정민·정혜원, 2015). 이와 같이 부모의 성취압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성취압력의 긍정 및 부정적 기능을 모두 보고하고 있다(박서연·정영숙, 2010).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원래의 이론이나 기대와 달리 예상보다 훨씬 낮거나, 여러 연구결과에서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산출할 때 조절변수의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구동모, 2013에서 재인용). 즉, 성취압력과 중독 간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한 것은 이를 조절하는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성취압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성취압력의 역할이 상이하게 나타난 이유를 밝히는 것 그 자체로 이론 및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강문비·이우걸·송주연, 2021).

본 연구에서는 성취압력과 중독 간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내재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내재화 문제는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과 같이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 문제로,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안으로 삭여 내면화되고 과잉 통제된 문제를 의미한다(오경자·김영아, 2010). 아동의 문제는 이처럼 내적인 갈등이나 고통을 억제하는 등 과잉통제된 행동이 원인이 되어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등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내재화 문제와, 갈등이나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과 같이 과소통제된 행동이 원인이 되어 공격성, 싸움, 비행 등의 행동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외현화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Achenbach, 199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우울 및 불안, 사회적 위축 등 내재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이현주·김희경, 2012), 아동기 내재화 문제는 이후 발달단계에서 외현화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Fanti, Henrich, Brookmeyer, et al., 2008; Mesman, Bongers, & Koot, 2001). 이와 같은 내재화 문제가 높은 상태에서 청소년기가 시작된다면, 이후 입시 스트레스 등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사회환경적 요소들에 노출되었을 때 내재화 문제가 심각한 부적응문제로 표출될 수 있으므로(좌현숙·변귀연, 2010),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며(전혜숙·전종설, 2017; 정민, 201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여러 정신병리학적 문제와 자주 연관된다(Andreou & Svoli, 2013). 더불어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지행동모델에서는 증상의 발생에 있어 기존의 우울, 불안 등의 정신병리의 존재가 영향을 줌을 설명하며, 이러한 병리 자체가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듦을 설명하였다(Davis, 2001). 성인 대상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울한 개인은 스마트폰 중독이 높으며, 우울이 증가할수록 중독에서의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나(임숙희·신현지, 2020), 성취압력과 미디어기기 중독 간 관계에서 내재화 문제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미디어기기 중독 문제를 겪는 아동·청소년 개입 시 내재화 문제에 대한 탐색과 조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에는 자기조절이 영향을 미치므로(Dennis, Brotman, Huang, et al., 2007), 내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조절을 개입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김세경, 2016). 자기조절이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경향성을 막아, 그러

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등 자신의 내적 반응을 무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중독은 일종의 자기조절 과정의 실패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김교헌, 2006), 장기적이고 균형잡힌 상위 위계 수준의 자기조절이 필요할 때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주위에 폐해를 유발하는 하위 위계 수준의 조절에 고착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교헌·최훈석, 2008).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설명하면, 아동기에는 학업 목표 달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학습 수행이 필요하지만, 미디어기기 사용에만 몰입하여 일상의 균형이 깨지거나 학업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독의 발생과 유지 과정에도 자기조절이 영향을 미침을 설명할 수 있다(Baumeister & Vonasch,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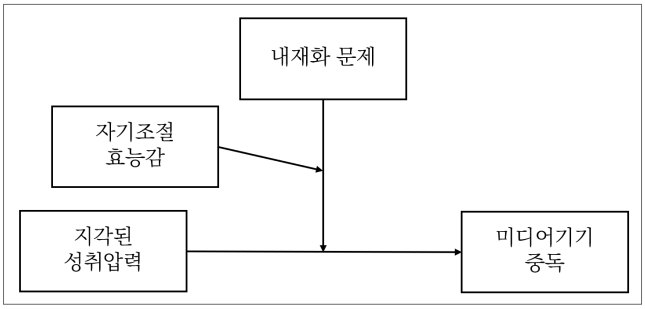
이에 더하여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린시절의 자기조절을 통해 당시 및 추후의 성취, 대인관계 행동, 정신건강 등 건강한 삶을 예측할 수 있다(Robson, Allen, & Howard, 2020). 특히, 학교 환경에서 높은 자기조절 능력은 아동이 파괴적으로 행동하거나 불안이나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내면화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아동이 어려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여러 관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되어 더 나은 우정의 질과 또래 호감이 생기도록 한다(Perry, Dollar, Calkins, et al., 2018). 이처럼 자기조절은 청소년기의 친사회적 행동과도 정적 연관을 가질 뿐 아니라(Carlo, Crockett, Wolff, et al., 2012), 정신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Woodward, Lu, Morris, et al., 2017).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상담 개입 시 아동의 자기조절 효능감 향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조절 효능감이란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의미한다(Bandura, 1986).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 및 사회적 자기조절 효능감은 긍정적 사고와 행복과 같은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쳐(Caprara & Steca, 2005), 개인의 내재화 문제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상담 개입을 활용하여 아동의 자기조절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면 내재화 문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이 지각한 성취압력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성취압력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재화 문제와 자기조절 효능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기기 중독 아동의 증상 및 적응에 영향을 주는 내재화 문제에 대해 탐색하고, 이들에게 상담 개입을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하는 방향과 초점에 대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모델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지각된 성취압력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재화 문제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재화 문제가 높을수록 지각된 성취압력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연구가설 2. 지각된 성취압력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재화 문제, 자기조절 효능감의 삼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은 아동의 경우, 지각된 성취압력과 미디어기기 중독 간 관계에 내재화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델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12차(2019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대상을 표집하여, 이들이 성인기에 진입하는 2027년까지 매해 실시되는 조사이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및 발달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성장 및 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육아지원기관의 기능 및 효과,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의 영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국아동패널, 2022). 이와 같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때, 전국 모집단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통계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조사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 5학년 시기인 12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150명의 표본 중 측정변인에 대한 결측치가 있는 표본

을 제거한 537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하나의 변수라도 결측이 존재할 경우 해당 관측치 자체를 제외시키는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에 해당한다(고길곤·탁현우·이보라, 2014). 결측치의 경우 내재화 점수에 대한 결측이 1,5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항목은 척도 특정상 본인이나 부모가 평정하는 다른 변인들과 달리 교사가 평정하는 항목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누락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에서 남학생은 293명(54.6%), 여학생은 244명(45.4%)이었으며, 이들이 스마트폰과 PC와 같은 미디어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1일 평균 1.79시간(*SD*=.98)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독립변인: 지각된 성취압력

지각된 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강영철(2003)이 사용한 척도의 문항을 오아름(2017)이 윤문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질까봐 걱정하신다'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 5점 척도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 데이터에서 해당 척도 문항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나. 종속변인: 미디어기기 중독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K-척도(인터넷중독 진단척도)' 청소년 관찰자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PC,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PC,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 4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하는 것이다. 총점 및 세 가지의 요인별 합산 점수 기준을 통해 사용자군을 분류할 수 있으며, 총점 27점 이하이면서 일상생활장애 12점 이하, 금단 10점 이하, 내성 9점 이하일 경우 '일반 사용자', 총점 28점-29점 이하, 일상생활장애 13점 이상, 금단 11점 이상, 내성 10점 이상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잠재적 위험 사용자', 총점 30점 이상이거나 일상생활장애 14점 이상, 금단 12점 이상, 내성 11점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고위험 사용자'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조사 데이터에서 해당 척도 문항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다. 조절변인1: 내재화 문제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오경자와 김영아(2010)의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교사용(Teacher's Report Form, TRF) 문항 중 '내재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33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사가 평정하는 것이며,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 있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등의 문항에 대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부터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하위요인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우울 문항들은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해하는 것, 우울/위축 문항들은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 및 주변에 대한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신체증상 문항들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연구분석 시 T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50점을 기준으로 위는 평균보다 높은 것, 낮은 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해당 척도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 문항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불안/우울은 .80, 위축/우울은 .81, 신체증상은 .71로 나타났다(김민영·김영아·오경자, 2012).

라. 조절변인2: 자기조절 효능감

아동의 자기조절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2003a, 2003b)의 학업동기 검사(Academic Motivation Test, AMT) 중 '자기조절 효능감'을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기대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등의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부터 '매우 그렇다(6)'로 평정하는 리커트 6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T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50점을 기준으로 위는 평균보다 높은 것, 낮은 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해당 척도 표준화를 위한 김아영(2002)의 연구에서 자기조절 효능감 문항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후, Hayes(2018)가 제시한 PROCESS MACRO의 Model 1과 Model 3을 적용하여 지각된 성취압력과 미디어기기 중독 간 관계에서 내재화 문제의 조절효과와 내재화 문제 및 자기조절 효능감의 삼원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를 이용한 분석은 부트스트랩을 통한 추정 방법으로, 신뢰구간이 영(0.00)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효과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신뢰구간이 영을 포함하지 않으면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척도의 평균값을, 조절변인의 경우 T점수 값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랩은 5,000번의 표집을 통해 계산하였다.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Aiken & West, 1991), 변인들의 값을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먼저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미디어기기 중독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537명 중 235명(43.76%)이 일반사용자, 68명(12.66%)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 235명(43.58%)명이 고위험 사용자로 분류되었다. 이는 K-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일반사용자군 90.5%, 잠재적 위험군 6.5%, 고위험군 3.0%으로 나온 것에 비해(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중독군의 비율이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Pearson 상관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지각된 성취압력의 평균은 척도의 중앙값보다 낮아 대상자들의 지각된 성취압력 정도는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T점수를 사용한 내재화 문제의 평균은 50점보다 낮아 대상자들의 내재화 문제는 약간 낮은 편이며, 자기조절 효능감의 평균은 50점보다 높아 대상자들의 자기조절 효능감은 약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 조절변인인 내재화 문제와 자기조절 효능감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18, p<.01), 종속변인인 미디어기기 중독은 조절변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12, p<.01).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N=537)

	1	2	3	4
1. 지각된 성취압력	1			
2. 내재화 문제	-.009	1		
3. 자기조절 효능감	.009	-.178**	1	
4. 미디어기기 중독	.055	.051	-.119**	1
최솟값	1.00	39.00	0	1.00
최댓값	4.00	92.00	77.00	2.93
평균	2.29	45.60	55.80	1.868
표준편차	.654	8.077	9.972	.397

주. $^{**}p$ 〈 .01.

2. 지각된 성취압력과 미디어기기 중독 간 관계에서 내재화 문제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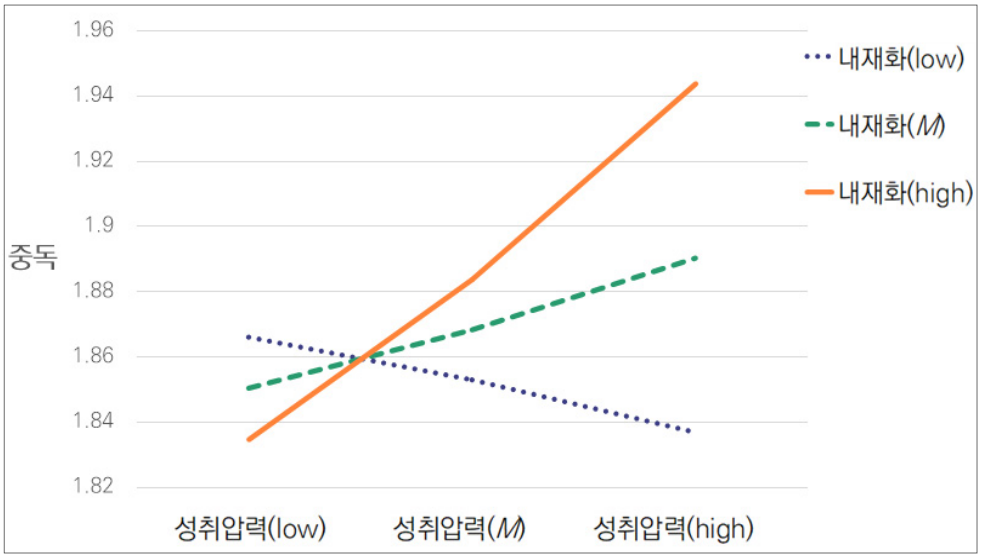
지각된 성취압력과 내재화 문제가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지각된 성취압력은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B=.02, t=.90, ns), 지각된 성취압력과 내재화 문제의 상호작용항은 미디어기기 중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01, t=2.55, p〈.05). Hayes(2013)에 따르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조건부효과 및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조건부효과가 유의하지 않더라도 이들을 포함하여 조절효과 모형을 검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인 내재화 문제는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립변수와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으므로 순수조절변수라고 할 수 있다(구동모, 2013).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른 R^2 변화량은 .012(p〈.05)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각된 성취압력과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서 내재화 문제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지각된 성취압력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내재화 문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2〉 지각된 성취압력과 미디어기기 중독 간 관계에서 내재화 문제의 조절효과

	B	*S.E.*	*t*	*p*	LLCI	ULCI
상수	1.868	.017	109.741***	.000	1.835	1.902
지각된 성취압력(X)	.024	.026	.896	.371	-.028	.075
내재화 문제(M)	.003	.002	1.289	.198	-.001	.007
X*M	.007	.003	2.551*	.011	.002	.013

주. $^{*}p < .05$, $^{***}p < .001$.

조절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지각된 성취압력과 내재화 문제의 평균(*M*)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높은 수준(+1*SD*)과 낮은 수준(-1*SD*)으로 구분하여 기울기를 살펴보았다. [그림 2]와 같이 내재화 문제가 높거나 보통 수준일 때는 지각된 성취압력이 증가할 때 미디어기기 중독도 증가하였으나, 내재화 문제가 높지 않을 때는 지각된 성취압력이 증가하면 미디어기기 중독은 감소하였다. 즉, 지각된 성취압력이 높아도 내재화 문제가 높지 않으면 미디어기기 중독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지각된 성취압력과 내재화 문제의 조절효과

3. 지각된 성취압력과 미디어기기 중독 간 관계에서 내재화 문제와 자기조절 효능감의 삼원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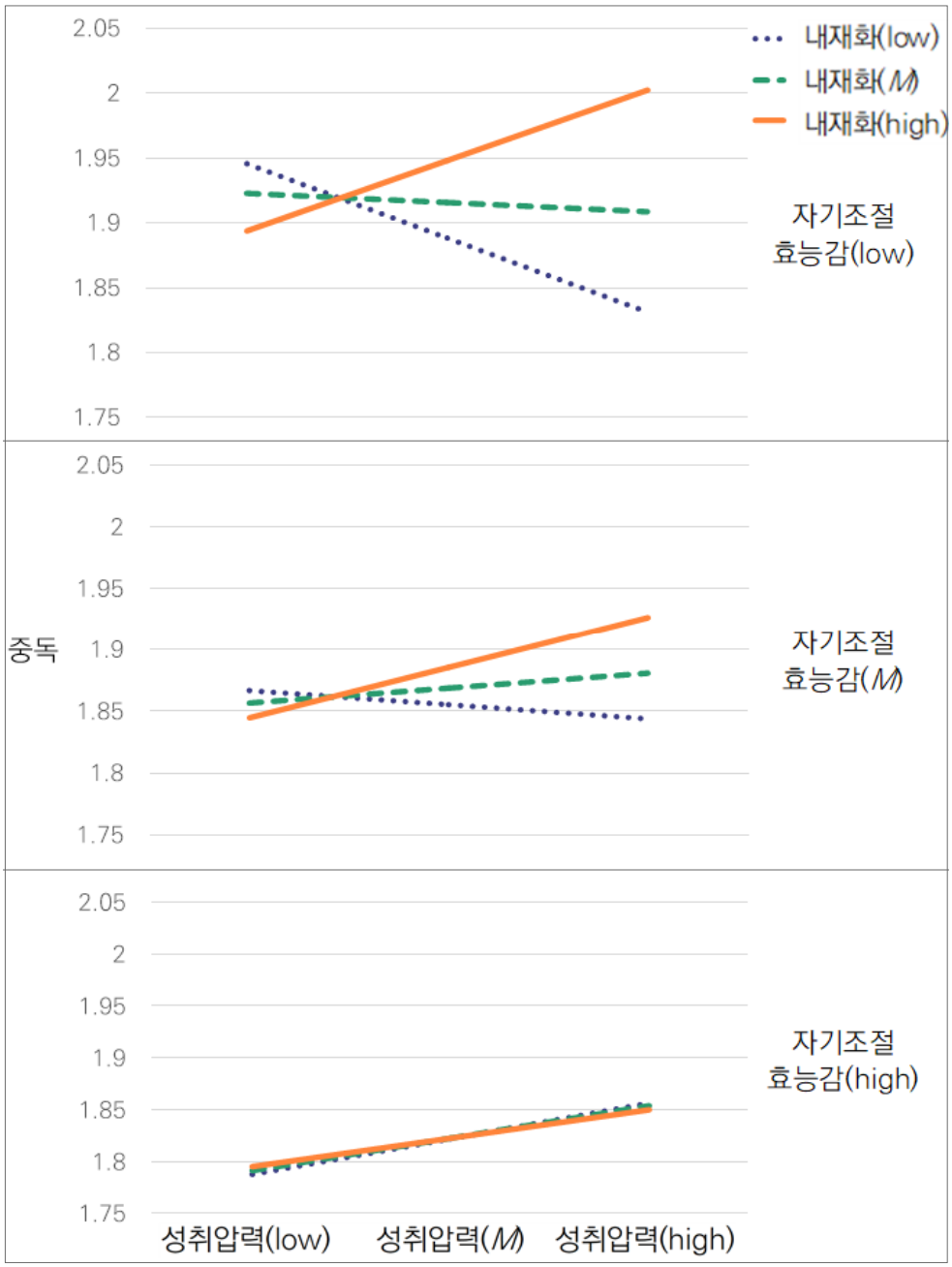
지각된 성취압력과 내재화 문제, 자기조절 효능감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미디어기기 중독이 낮았으며(B=-.01, t=-2.66, p〈.01), 지각된 성취압력, 내재화 문제, 자기조절 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은 미디어기기 중독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00, t=-2.27, p〈.05).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른 R^2 변화량은 .009(p〈.05)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이는 지각된 성취압력 및 내재화 문제와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3〉 지각된 성취압력과 미디어기기 중독 간 관계에서 내재화 문제와 자기조절 효능감의 삼원 조절효과

	B	*S.E.*	*t*	*p*	LLCI	ULCI
상수	1.867	.017	109.491***	.000	1.835	1.902
지각된 성취압력(X)	.018	.026	.701	.484	-.033	.070
내재화 문제(M)	.002	.002	.890	.374	-.003	.007
자기조절 효능감(W)	-.005	.002	-2.655**	.008	-.001	.012
X*M	.006	.003	1.694	.091	-.008	-.001
X*W	.003	.003	1.076	.282	-.002	.008
M*W	-.000	.000	-.994	.321	-.001	.000
X*M*W	-.000	.000	-2.268*	.024	-.001	-.000

주. *p 〈 .05, **p 〈 .01, ***p 〈 .001.

이러한 결과의 해석을 위해 지각된 성취압력과 내재화 문제, 자기조절 효능감의 평균(M)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높은 수준(+1SD)과 낮은 수준(-1SD)으로 구분하여 자기조절 효능감에 따른 내재화 문제와 미디어기기 중독의 단순 기울기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은 경우 내재화 문제가 높을 때 미디어기기 중독도 증가하였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도 내재화 문제가 높을 때 성취압력이 미디어기기 중독을 증가시키긴 했지만,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은 아동에 비해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은 아동일수록 내재화 문제가 성취압력과 미디어기기 중독 간 관계를 증가시키는 정도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3]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지각된 성취압력, 내재화 문제, 자기조절 효능감의 삼원 조절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성취압력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재화 문제의 조절효과와 내재화 문제 및 자기조절 효능감의 삼원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자료 중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아동 537명의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동의 자기조절 효능감은 내재화 문제 및 미디어기기 중독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조절 효능감과 중독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유향숙·민경옥, 2015). 효능감의 경우 스스로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은 과거 경험에 비춘 효능기대를 설정하여 동기를 유발하고 행위를 예상할 수 있다(김아영, 2004). 때문에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의 자기조절 행동 수준을 예상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분석결과를 통해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효능기대가 내재화 및 중독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검증 결과 첫째, 지각된 성취압력과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서 내재화 문제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성취압력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중독 문제 간 관계의 방향이 비일관적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문두식·최은실, 2015; 박서연·정영숙, 2010; 이정민·정혜원, 2015; 장재홍, 2004),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성취압력 자체는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지각된 성취압력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같은 변인과 상호작용할 때 중독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기기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에 있어서 아동의 지각된 성취압력과 내재화 문제에 대해 동시에 탐색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각된 성취압력과 미디어기기 중독 간 관계에서 내재화 문제와 자기조절 효능감의 삼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원 조절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은 아동일수록 내재화 문제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성취압력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문제에 있어 자기조절 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자기 관찰, 자기 판단,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의미하므로(Bandura, 1986), 자기조절 능력과도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자기조절을 통해 부정적 감정의 내면화와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선행연구결과들과도 한 맥을 이루고 있다(Dennis, Brotman, Huang, et al., 2007; Perry, Dollar, Calkins, et al., 2018; Robson, Allen, & Howard, 2020; Woodward, Lu, Morris, et al., 2017).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문제에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함께 작용하므로, 이와 같은 아동 사례의 개입 시 자기조절 효능감에 집중할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조절 효능감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방법을 고안했을 때, 먼저 자녀와 부모 및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andura(1986)는 개인의 효능감이 타인의 언어적 설득에 영향을 받음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신윤성, 2012), 더불어 교사의 개방적 의사소통 또한 학생의 자기조절 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이지연·김해란, 2019). 자녀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부모의 성취압력 중 어떤 요소가 강조되는지와 어떤 양육태도나 의사소통 방식으로 표현되는지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성취압력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강문비·이우걸·송주연, 2021). 이를 바탕으로 중독 및 내재화 문제를 호소하는 아동의 부모 및 교사 상담 시 아동이 성취압력을 과도하게 지각하지 않도록 격려 및 동기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소통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 효능감에 대한 개입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아동의 자기조절에 대한 성공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의 효능감에는 성공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Bandura, 1977), 아동 스스로 자기조절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 또한 자기조절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은 외부로 표출되는 행동의 제어부터 인지체계의 제어까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Post, Boyer, & Brett, 2006), 아동 발달의 관점에서 자기조절은 요청에 응하고, 상황적 요구에 따라 활동하고, 사회 및 교육적 환경에 따라 행동과 언어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Kopp, 1982). 구체적으로 규칙 준수, 자기훈련, 자기통제 및 통제에의 노력, 자기관리, 자기 모니터링 등은 자기조절 과정이 적용된 것으로(Post, Boyer, & Brett, 2006), 이를 통해 아동의 자기조절 경험을 증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내재화 및 중독 문제를 호소하는 아동의 상담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자기조절 기술의 향상과 성공적인 조절 경험을 위해 함께 자기조절 전략을 수립하고,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면 자기조절 효능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먼저 해당 연구의 자료 및 방법으로 인한 한계점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의 응답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참여자 수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가 제외되었다. 문항을 결측한 응답자들의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다수의 사례가 제외되어 결과 추정이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해당 연구 자료의 기술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지각된 성취압력의 평균은 중앙값보다 낮았으며, 내재화 문제는 평균 이하, 자기조절 효능감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응답에 참여한 아동들의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통계적 분석만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변인 간 관계에 대해 일반화하거나 심층적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및 관찰 등의 질적 연구방법들을 활용하여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특정 시점의 자료를 활용한 횡단 연구결과로, 통계분석을 통해 추정하였을 뿐 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확정하여 논할 수 없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오히려 변인 간 미디어기기 중독 경향성이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 또한 존재하므로(금창민·김동일, 2013; 정은혜·이소연, 2017),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종단 연구모델의 설정과 검증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내재화 문제는 교사가 측정한 자료를, 미디어기기 중독의 경우 부모가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 또한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나 부모가 아동의 문제들을 측정하는 데 따른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반에서 다수의 학생을 관찰 및 지도하는 교사의 경우, 해당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모의 경우에도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아동의 평소 미디어기기 사용 경향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에 대한 자기보고를 활용하거나 부모와 교사 모두로부터 점수를 얻어 합산한 것의 평균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양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아동이 중독을 호소하는 미디어기기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미디어기기를 활용하여 과몰입하는 매체나 목적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기기를 활용하여 게임에 몰입하는 아동과, SNS에 몰입하는 아동의 경우, 각각 중독에 이르는 과정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미디어기기의 종류나 몰입 양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자료를 미디어기기 중독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아동과 부모 개입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IT 기기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큰 편의를 얻었지만, 미디어기기 중독이라는 심각한 부작용 또한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스마트폰 및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보고가 있어(조현섭·한영주·원성두 외, 2021), 이들 문제에 대한 개입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아동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빠지지 않게끔 학교 교육과정 및 정책 차원에서의 예방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생 집단의 경우 인터넷 중독 문제가 다른 발달연령의 집단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박성은·임선아, 2016), 초등학생 대상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김동일·금창민·박알뜨리 외, 2017).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중독의 영향 및 과정, 예방을 위한 자기조절 등에 대한 심리교육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면 아동 스스로도 책임성과 경각심을 느껴 중독 예방 활동을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도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예방을 위해 자녀와의 스마트폰 관련 대화와 같은 부모용 지침서를 발간하거나,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장승옥·전호선, 2015).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조기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내재화 문제는 성취압력과 미디어기기 중독 간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내재화 문제가 아동을 중독에까지 이르게 하여 추후 발달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아동의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는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주리, 2008; Grimm, 2007), 일반적으로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더 높거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좌현숙·변귀연, 2010),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1, 4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검사를 통해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등의 정신건강 문제들을 선별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저학년 시기와 고학년 시기에 한 번씩 아동의 정서와 행동 문제에 대해 감지하여, 이후 적응에 대한 지원과 조력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하지만 관심군으로 통보받은 학생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비율이 낮으며, 이는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

명희·서지민, 2017). 이처럼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생각 및 치료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나 치료에 따르는 오명, 서비스에 대한 반감 등 인식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강은정, 2007). 이와 같은 오해와 편견들의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조절 효능감의 중요성이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예방을 위해 자기조절 효능감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가정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자기조절 효능감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모 교육 및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 및 아동기 부모들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취에 대한 가치와 양육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아동이 성취압력을 과도하게 지각하지 않게끔 소통할 수 있다면 아동의 중독 문제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자녀의 자기조절 효능감을 기르도록 조력할 수 있는 전략들을 배울 수 있다면 자녀의 중독 예방과 심리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 현장에서도 교과목 운영 및 교수 방법 차원에서 아동의 자기조절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조절 학습을 적용한 수업 방식은 자신감 향상을 통해 자기조절 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김선희, 2016), 교사는 자기조절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해 안내하고 학생들이 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조승우·김아영, 1998). 또한, 아동이 성취에 대한 숙달목표를 가지고 자기평가를 실시할 경우 자기조절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박빛나, 2019), 아동의 내재적 학습동기 또한 자기조절 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학습시간과 높아지는 교과 수준으로 인해 학습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을 조력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우영식·송민옥, 2022). 이와 같은 학습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교과목 운영 방법을 고안한다면 아동의 중독 예방 및 적응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더불어 아동 상담 및 심리 지원 기관에서는 미디어기기 중독 문제를 호소하는 아동의 자기조절 효능감 함양에 초점을 맞춘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스마트폰 중독 중재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 운동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김덕주, 2020), 스트레스 대처 훈련이나 자기생활관리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거나(임창우·정구철, 2016), 자기조절력에 초점화하여 환경 및 습관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효과 또한 연구된 바 있다(김동일·우예영·임정은 외, 2020). 선행연구 및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들의 자기조절 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한다면, 이들의

내재화 문제 완화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디어기기 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문비·이우걸·송주연(2021). 학생이 지각한 부모 성취압력과 자녀의 학업성취, 시험불안,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35(2), 365-392.

강영철(200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자아 및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은정(2007). 한국 아동 정신건강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128, 60-72.

강희양·박창호(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563-580.

교육과학기술부(2010). 학생 정서·행동 선별검사 및 추구관리 매뉴얼. http://www.moe.go.kr에서 2022. 7. 1 자료 얻음.

고길곤·탁현우·이보라(2014). 설문조사 연구에서 결측치의 영향과 대체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실증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3), 49-75.

구동모(2013). SPSS, LISREL, PLS 및 PROCESS를 활용한 기초, 조절·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학현사.

금창민·김동일(2013).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proneness)'과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28-738.

김길임·심희옥(2002).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아동학회지, 23(5), 139-151.

김교헌(2002).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중독.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159-179.

김교헌(2006). 중독과 자기조절: 인지신경과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63-105.

김교헌·최훈석(2008). 인터넷 게임중독: 자기조절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551-569.

김덕주(2020). 스마트폰 중독의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3), 276-288.

김동일·금창민·박알뜨리·이승호(2017).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18(2), 293-314.

김동일·우예영·임정은·이수빈·송주석·최수미(2020).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

과성 검증: 자기조절력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5), 315-338.

김민영·김영아·오경자(2012). 한국판 아동·청소년행동평가 척도 교사용(TRF)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67-391.

김명희·서지민(2017).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에 대한 학부모의 지식과 태도.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2), 207-218,

김아영(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157-184.

김아영(2003a). AMT 학업동기 검사. 심리검사연구소 인싸이트.

김아영(2003b). AMT 학업동기 검사 전문가 지침서. 심리검사연구소 인싸이트.

김아영(2004). 자아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연구, 16(2), 1-38.

김유진·김종운(2013).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및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실패내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2), 119-148.

김선희(2016). 자기조절학습을 적용한 수학수업이 학업성취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결정성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연구, 9(2), 15-38.

김세경(2016). 청소년의 자기조절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7(3), 251-274.

문두식·최은실(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0), 213-236.

박빛나(2019). 과학 자기평가가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순차적 설명설계의 적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서연·정영숙(2010).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17-32.

박성은·임선아(2016).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30(3), 497-534.

박수자(1996).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습소외 및 대처행동과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윤성(201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남녀 청소년의 목표지향성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초희·이경숙·김계순(2013). 초등생의 인터넷중독 성향이 사회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 지능발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45-346.

오경자·김영아(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휴노컨설팅.

오아름(2017). 부모 학업 성취 압력이 학습자 실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성취 목표 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영식·송민옥(2022). 초등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교육발전, 42(2), 583-599.

유향숙·민경옥(2015). 초등학생들의 정신건강,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이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 24(1), 213-227.

이정민·정혜원(2015).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의 관계 연구: 학업적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6(2), 209-235.

이주리(200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초등학생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궤적. 아동과 권리, 12(4), 503-523.

이지연·김해란(2019).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자기조절효능감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11), 61-83.

이현주·김희경(2012).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신건강과 영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1), 149-158.

임숙희·신현지(2020). 우울, 불안 및 외로움의 변화가 스마트폰 중독의 변화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1), 273-286.

임창우·정구철(2016). 청소년 스마트폰 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중독, 1(1), 67-84.

장승옥·전호선(2015).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체계 실태와 융복합 정책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3(8), 33-41.

장재홍(2004).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욕구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5(1), 113-128.

전혜숙·전종설(2017).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9(3), 53-80.

정민(2015).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6(3), 103-131.

정은혜·이소연(20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의 다중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3), 119-146.

조승우·김아영(1998). 초등학교 아동의 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전략 사용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7, 71-88.

조현섭·한영주·원성두·김희선·유지혜·최재원·황유빈(2021). 코로나19 시대 학부모들의 정신건강 및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현황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5), 943-959.

좌현숙·변귀연(2010).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과정에서 내재화 문제의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학교사회복지, 19, 113-140.

한국아동패널(2022). 한국아동패널 소개. https://panel.kicce.re.kr에서 2022. 7. 1 자료 얻음.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연구. https://www.iapc.or.kr 에서 2022. 12. 12 자료 얻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http://www.nia.or.kr에서 2022. 7. 1 자료 얻음.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Andreou, E., & Svoli, H. (2013).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net user characteristics and dimensions of internet addiction among Greek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1*(2), 139-148.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aumeister, R. F., & Vonasch, A. J. (2015). Uses of self-regulation to facilitate and restrain addictive behavior. *Addictive Behaviors*, *44*, 3-8.

Caprara, G. V., & Steca. P. (2005). Affective and social self-regulatory efficacy beliefs as determinants of positive thinking and happiness. *European Psychologist*, *10*(4), 275-286.

Carlo, G., Crockett, L. J., Wolff, J. M., & Beal, S. J. (2012). The role of emotional reactivity, self-regulation, and puberty in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s. *Social Development*, *21*(4), 667-685.

Davis, R. A. (2001).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7*(2), 187-195.

Dennis, T. A., Brotman, L. M., Huang, K. Y., & Gouley, K. K. (2007). Effortful control, social competence, and adjustment problems in children at risk for psychopathology.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3), 442-454.

Fanti, K. A., Henrich, C. C., Brookmeyer, K. A., & Kuperminc, G. P. (2008). Toward a transactional model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quality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8*(2), 252-276.

Grimm, K. J. (2007). Multivariate longitudinal methods for studying developmental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4), 328-339.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Mesman, J., Bongers, I. L., & Koot, H. M. (2001). Preschool developmental pathways to pre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2*(5), 679-689.

Perry, N. B., Dollar, J. M., Calkins, S. D., Keane, S. P., & Shanahan, L. (2018). Childhood self-regulation as a mechanism through which early overcontrolling parenting is associated with adjustment in pre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4*(8), 1542-1554.

Post, Y., Boyer, W., & Brett, L. (2006). A historical examination of self-regulation: Helping children now and in the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4*(1), 5-14.

Robson, D. A., Allen, M. S., & Howard, S. J. (2020). Self-regulation in childhood as a predictor of future outcome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6*(4), 324.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Woodward, L. J., Lu, Z., Morris, A. R., & Healey, D. M. (2017). Preschool self

regulation predicts later mental health and educational achievement in very preterm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he Clinical Neuropsychologist*, *31*(2), 404-422.

• 논문접수 11월 1일 / 수정본 접수 12월 2일 / 게재 승인 12월 9일

• 교신저자: 강영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lavieenrose@jnu.ac.kr

Abstract

The Effects of Perceived Achievement Pressure on Media Device Addiction among Children: Three-way Interaction Effects of Internalizing Problems and Self-regulatory Efficacy

Seong-Eun Jeon and Young-Shin Kang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effect of internalizing problems as well as three-way interaction effect of internalizing problems and self-regulatory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chievement pressure and media device addicti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12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 total of 537 fif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was selected as the participant sample out of the total panel of 2,150 youths. The results indicated that self-regulatory efficacy was negatively related to internalizing problems and media device addiction. Moreover, the interaction effect of perceived achievement pressure and internalizing problems on media device addiction was significant. Finally,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of perceived achievement pressure, internalizing problems and self-regulatory efficacy on media device addiction was significant. That is, when children had low self-regulatory efficacy, the effect of internalizing problem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chievement pressure and media device addiction became more seve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 perceived achievement pressure, media device addiction, internalizing problems, self-regulatory efficacy, three-way interaction effect